

데스크시각

오주승



광주에서 산다는 것이 짜증나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면 더욱 그렇다. 이번 대선은 중세가 더 심하다. 김대중, 노무현처럼 호남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없어서인지 정치권의 호남 구애는 어느 선거 때보다 강하다. 구애의 수준을 넘어 애걸에 가깝다.

이런 현상에 불을 붙인 것이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다. 영화 제작사가 대선이란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했을 지는 의문이지만 개봉 시기 하나는 기가 막혔다. 5·18을 다룬 영화를 보지 않을 정도로 무신경하거나 배짱 두둑한 대선 주자가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현재 '화려한 휴가' 이벤트를 한창이다. 대선 주자 각각 자신의 5·18 경험을 속속 '커밍아웃'하는가 하면, 광주의 한 극장을 통째로 빌려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본 주자가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삶의 과정을 불문하고 눈시울이 붉힌 채 "광주는 역시 민주성지"란 관란평을 내놓는 것도 많은 풀

이다. 광주 찬사 행렬에 정치적 유전자쯤은 문제될 것이 없다. 5·18을 피로 집압한 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경선후보라고 빠질 수는 없지 않는가. 80년 당시 고교생이었던 원희룡 의원은 "5·18로 인해 인생의 진로를 바꿨다"고 말했고, 홍준표 의원은 "미안한 마음에 5·18묘지를 아직 참배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5·18 이벤트, '커밍아웃' 속출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지난 5월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없을 것"이라고 광주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5·18사태'라는 80년대 군부독재 옹호자들의 용어를

구사하다 역사관의 일단을 노출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본전도 못 찾은 셈이다.

5·18의 대척점에 있는 5·16을 '국국의 결단'이라고 연일 강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도 광주에서 영화를 본 뒤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속칭 범여권은 이 영화를 대선 판세 변화의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다. '화려한 휴가'가 대박을 터뜨리면 '민주·개혁·평화' 진영 대 군부세력 후예'라는 구도가 부각

지 못한 자괴심에 괴로워했다고 털어놓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인연을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이 주는 임명장을 받을 수 없어 관·검사를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고백했다.

광주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5·18만 떼어놓고 보면 범여권 선두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취약한 편이다. 한나라당 출신이고, 5·18 당시 그는 유학중이었다. 그런 그가 "광주를 털어버리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나갈 때 광주 정신은 더 빛날 수 있다"는 '광주극복론'을 얘기했다가 경쟁 상대로부터 땀방울 맞고 있다. 모두 '화려한 휴가'가 빛을 신드롬이

다. 어찌됐든 '광주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다. 그러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광주가 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나, '광주여, 다시 한번'을 외치는 범여권이나 광주에 기대려는 행태는 비슷하다.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5·18에 대해 광주에서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화려한 휴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거리는 이벤트를 연출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는 그들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 <정주부장> jsoh@kwangju.co.kr

'화려한 휴가'와 光州

되면서 열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관객은 300만을 훌쩍 넘어 400만을 향해 쾌속행진이다. 영화 한편의 위력, 참으로 대단하다.

한나라당 주자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범여권 주자들의 '화려한 휴가' 관람은 단순하지 않다. 관람객 또한 자신의 5·18 경험을 섞어 구체적이다. 타 주자의 5·18 관련 약점을 공격하는 데도 활용하니 일석이조다.

이해찬 전 총리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직접 당사자임을, MBC 기자였던 정동영 전 의장은 5·18현장을 보도하

시설

광주시, 혈세 먹는 민자도로 대책 서둘러라

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인 혈세만 촉내는 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차량 통행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광주시가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민자사업자에게 비싼 통행료에다 세금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유료화된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당초 예상치의 54.9%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보전액이 연간 40억원에 달한다. 시는 주변 우회도로가 많은 데다 짧은 거리에 비해 다소 높은 요금, 홍보 부족 등이 통행량 감소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4구간의 평균 통행량 54.9%는 기존의 1구간과 3구간 통행량 50~6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애초부터 통행량 예측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빗나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빗나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빗나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해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인 1구간, 3구간의 광주시 적자 보전액은 170억원에 이르렀다. 4구간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억원 정도의 혈세가 민자도로 적자보전액으로 쓰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20년 이상 막대한 혈세를 촉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적자보전 기간이 30년 안팎인데다 통행량도 당장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되면 도로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아닐 수 없다.

시는 1, 3구간의 보전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투자사 측과 재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반발로 한 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관리 운영권을 회수해서라도 더 이상의 혈세 낭비는 막아야 한다.

광주시는 민자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투명성 높여야

광주지역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YMCA,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혁신협의회 등 1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민간 및 사회단체들의 생명이 도덕성과 투명성이란 점에서 실망스럽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는 엉망이었다. 단체장의 사생활 변경승인 없이 집행하고 예비비 집행규정도 어긋났다. 청소용역 관리계약 미체결과 근무일지 미작성도 적발됐고 심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보고 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광주시의 보조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시민단체들의 건전한 활동을 권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지원 목적이거나 기존에 맞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연간 1억원 이상이다. 지난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55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규모가 비교적 큰 단체들이 이 지경인데 나머지 단체들의 실상은 어떨지 궁금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엉망인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사후 정산까지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마음대로 용도를 바꾸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無等鼓

최근 교육문제를 다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강남엄마 따라잡기'가 그것. 김원희 작가가 원래 코미디 작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과장된 연기와 코믹한 전개가 웃음을 자아내려 한다. 만기만 인간의 비결은 현 교육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풍자일 게다. 그것도 한 국민에게 가장 예민한 학벌과 빈부격차, 촌지 등 말하기 거북한 소재를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켜 준다.

내용은 남편을 잃고 '전교 1등'인 중학생 아들을 희망삼아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고졸 강북엄마가 아들이 영예시대회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아 오자 강남으로 이사 가서 겪는 좌충우돌이다. 강남엄마들의 모습

이 왜곡됐다는니, 계층갈등을 조장한다느니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우리 교육 현실만큼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강남'은 자식의 성적을 통해 엄마의 자긍심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의 배출구이면서 부조리가 판치는 교육 공간으로

설정된다. 또다른 강북엄마가 '돈가방'을 전달하고 '쌈뽕' 아들을 전학시키는 대목에선 학원비리의 냄새도 난다. 신참 교사인 담임이 순수한 마음에서 돈을 돌려보냈는데도 학부모들끼리 모여 "액수가 적다. 얼마를 더 쥐야 할까"하고 고민하는 부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촌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무작정 강남엄마 따라잡기에 나선 강북엄마를 드라마 밖의 현실로 끌어내보자. 아마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끝날 게 뻔하다. 현 제도 하에서 아들이 강북에 남아 전교 1등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육 뒷바라지는 정보력이 관건인데 엄마는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기 일쑤고, 무슨 일만 터지면 '화살받이'는 그녀의 몫이 된다. '남편도 없이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공부시키려는 게 무슨 죄냐'는 강북엄마의 울부짖음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김우영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강남엄마 따라잡기



기고

한병선



교사들은 미성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그런 만큼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에 담겨있지 않지만 교사들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교사의 인격, 학급 경영, 학생과의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교사가 내린 판단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좋은 교사나 아니냐의 여부는 결국 교육적 판단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판단에 대한 고

지각을 하면 할수록 벌금이 더욱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해를 태면 해보자는 식이다. 결국 지각을 하는 학생들의 지각비는 서서히 수 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뚫으면 학생들이 지각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상황은 교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담임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다. 이후 상황은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적 판단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 지는 교사 스스

교사는 '세리(稅吏)'가 아니다

민이 부족하다.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음은 한 가지 예다.

교사들은 학급경영에서 흔히 벌금을 걷는다. 그 중 '지각비'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지각을 막기 위한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각 횟수 당, 적게는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만원씩을 걷는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예기를 좀더 진행시켜보자.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빛 아닌 빛 속속에서 시달린다. 교사는 당연히 재판관이 된다. 이런 채권, 채무관계는 일년 내내 지속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들이 학급 내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벌금 효과가 없으면 답안은 다시 지각비를 인상한다. <교육평론가>

로가 자문해볼 일이다. 판단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 속의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稅吏)였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다. 하여 그는 뿔나무 위에 올라가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은 옳았다. 오늘도 학교현장에서 지각비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판단이 정말 교육적인 것인지 고민 없는 교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들과 다르지 않다.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편의적, 관행적 판단은 안 된다. 지적됐듯이 교육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키 작은 삭개오가 뿔나무에 올라가는 판단력을 보였다면 것처럼. <교육평론가>

교사자격증 취득요건 강화 부작용도 검토해야

2009년 대학신입생부터 대학성적이 75점 미만이면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시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까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현직교사들의 교육활동이란 교과지도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문제해결 및 부적응 학생들의 상담도 결코 경시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다. 대학성적까지 반영한다면 암암히 이들 대 학생들은 고시준비반이나 다름없으며 예비 교사로서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활동을 포기해야할 판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교사는 결코 교과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과 처지,부정응자와 문제해결

들에 대한 인간선배로서의 진지한 대화와 상담 등으로 잘 적응하게 길러주는 교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지도도 교육의 한 분야일뿐 결코 전부일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적이 조금 나은 예비교사를 양성하려다 절름발이식 교원을 양성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며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대학생들의 의견과 여론수렴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갈등과 마찰을 낳게 되므로 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은펜클럽

임명재



광주지하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두 차례에 걸친 시내버스 노선 조정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정책을 통해 지하철 승객이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골치 아픈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하철에 대해 비난만 할 뿐 대책을 마련에는 전혀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지하철의 해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되길 바라면서 논거를 제시해보겠다.

전 세계적으로 광역화된 문명도시처럼

로 00마트, 미관광장, 시청, 아파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계속 순환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상무지구내 관공서의 공무원과 편의시설과 컨벤션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주민들의 활동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며, 특히 시청 공무원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쌍춘역과 염주동, 월드컵경기장, 풍암지구를 순환하고, 농성역과 관천터미널과 기아자동차를 순환하는 노선, 도청과 조선대와 교대를 순환하는 버스, 하남지구와 공학역을 순환하고 그리고 양동역과 전남대를 순

광주 지하철 활성화 가능하다

고 지하철과 같은 대량운송수단을 갖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도시의 곳곳이 고루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업무·공원·주거·스포츠 등의 제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하철 없는 서울을 상상할 수 있을까?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하철과 같은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첫째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하철전용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지하철역과 각 가정을 가장 손쉽게 연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상무역을 시작으로

환하는 버스를 만든다면 그래서 일반버스와 무관하게 이용객이 많은 노선에 가장 직접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면 지하철은 광주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하철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리고 순환도보다도 이제는 지하철 순환 노선이 계획되어야 한다. 철단, 신창, 수안, 하남, 풍암, 금호, 진월, 봉성, 두암, 양산지구와 혁신도시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광주의 경쟁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약사·(사)문화사령시영연대대표·2005년 12월 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빗길 운전편 사고 예방위해 전조등 켜야

비 오던 날 자동차를 운행하던중 커브길에서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할뻔한 일을 겪었다. 그 차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채로 평강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빗속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위험했다.

비오는날 승용차 전조등을 안켜면 너무나 위험하다.

빗길에서 운전자의 시계는 평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앞 뒤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1시간에 1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전조등을 켜 차량은 100m 거리에서도 차량의 인식이 가능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10m 앞에 가서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보도됐다.

전조등은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게 아니라 이미 충전돼있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없다.

비오는 날 전조등을 켜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6 여론체육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